

2025년 7월 4일(금) 정기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4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팀

유 형 : 행사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■ 사진없음 □

관장	박은아	051-310-5410
팀장	신명희	051-310-5443
담당자	김민주	051-310-5470

부산도서관, 책에서 길을 찾다, 공간에서 감성을 만나다... 도서 추천(북 큐레이션) 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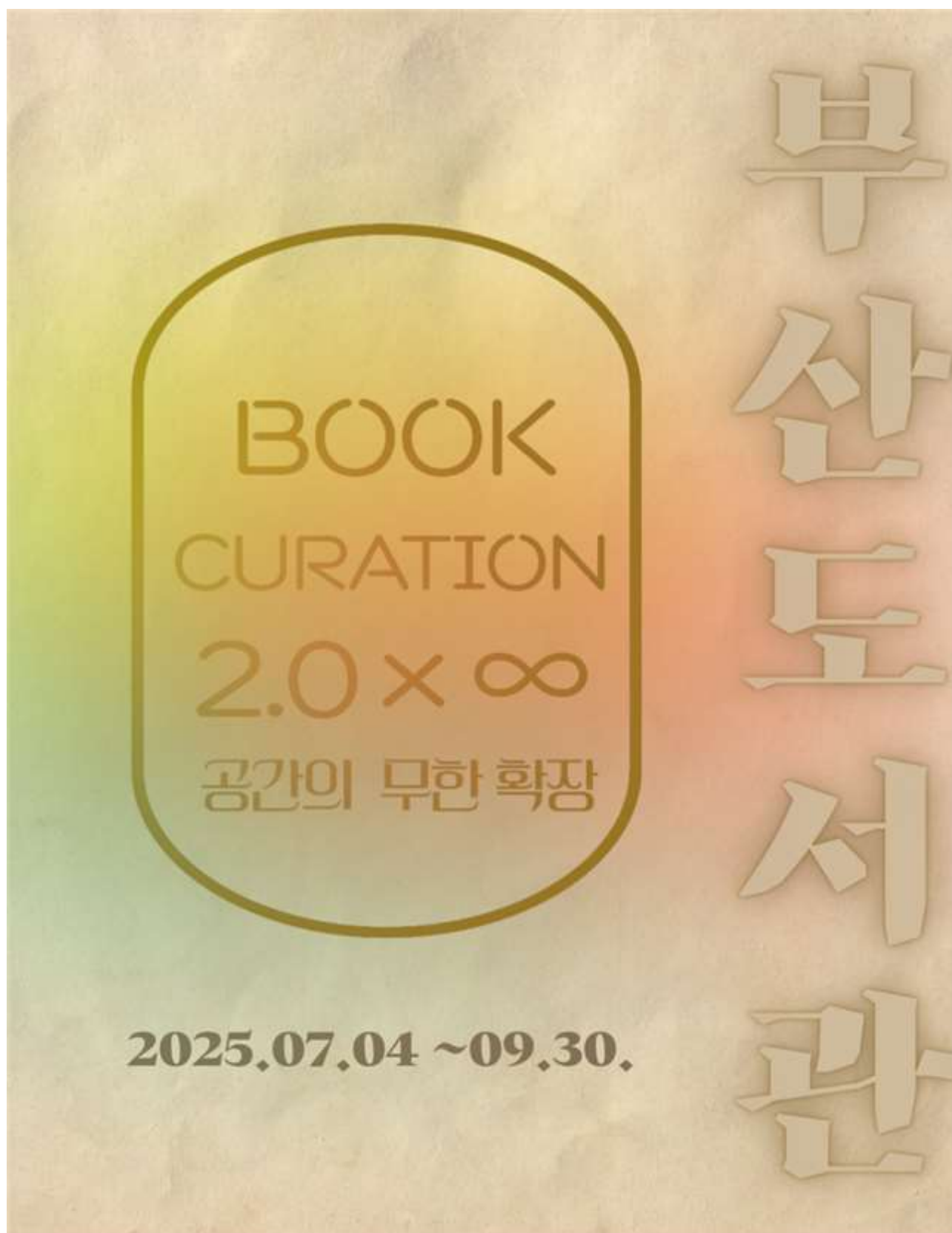
- ◆ 7.4.부터 3분기 도서 추천(북 큐레이션) 전시... 「북 큐레이션(BOOK CURATION) 2.0 × 인피니트(∞): 공간의 무한확장」 개최
- ◆ 국내외 문학·예술·지역자료 등을 감각적으로 선별한 3분기 도서 추천(북 큐레이션)으로 책과 공간, 기록이 어우러진 시각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책의 새로운 가치를 제안

- 부산도서관(이하 도서관)은 「북 큐레이션(BOOK CURATION)* 2.0 × 인피니트(∞): 공간의 무한확장」이라는 주제 아래, 책과 예술, 도시의 기억, 철학적 사유를 연결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안하는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북(Book)과 큐레이션(Curation)의 합성어로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

- 이번 전시는 공간별 특화된 추천(큐레이션)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감성과 지식이 교차하는 열린 문화 공간임을 알리고, 시민들의 독서 경험을 입체적으로 확장하고자 기획됐다.
- 이번 전시는 ▲국내외 문학 ▲예술 ▲인문 ▲지역 관련 자료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도서와 아카이브를 선별해 책이 담고 있는 의미를 다층적으로 탐색하고, 도서관을 매개로 한 새로운 문화적 몰입이 가능하게 준비했다.
- 특히, 1.5세대 상업광고 사진가 고(故) 황성준 작가가 기증한 부산근현대 역사관 사진 아카이브를 활용해, 1960~80년대 부산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.
- 도서관 내 공간들을 활용해 주제에 따라 ▲지역서점 협업(취향서점) ▲테마별 주제(오늘의 북플릭스) ▲지역 아카이브 전시(부산의 기억) 등을 아우르는 '도서 추천(북 큐레이션) 전시'를 운영한다.

- [취향서점, 2층 책마루 자료실] ‘책방 카프카의 밤’과 ‘비온 후 서점’이 참여하는 감성 추천(큐레이션) 전시가 진행되며, 독서의 자기 탐색, 예술과 공간에 대한 사유를 주제로 한다. 이외에도 다양한 테마 도서 전시를 통해 폭넓은 독서 취향을 반영한다.
 - [오늘의 북플러스, 3층 책누리터] 인문·과학·예술 등 주제별 기획 전시 ‘오늘의 북플러스’와 아트북 중심의 ‘예술특화도서 코너’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적 몰입을 제공한다.
 - [아카이브 전시, 3층 부산애뜰] ▲부산지역 기반 콘텐츠인 ‘부산을 걷다. 풍경을 보다’, ‘부산, 독립출판’ 등과 ▲부산근현대역사관의 전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(황성준 사진작가 기증)으로 한 1950~80년대 부산의 도시 기억을 담은 사진전 「부산에서 태어난 것들」이 개최된다. 이를 통해 1950~80년대 산업도시 부산의 시각적 기억을 조명하며, 지역 정체성과 삶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.
- **취향서점 '책방 카프카의 밤 서점' 테마 전시 기간에 참여형 도서 추천(북 큐레이션) 프로그램 「일상 속의 주역: 주역으로 여는 오늘」이 함께 운영된다.**
- 해당 프로그램은 도서 『도올주역강해』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주역 점을 치고 해석을 통해 나만의 ‘괘* 메모’를 완성하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.
 - * 괘: 주역에서 음과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선(線)으로 구성된 도형으로, 자연과 인간사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점을 치는 기본 단위
 - 6효로 구성된 괘를 완성하고 해석을 확인하는 ‘괘 읽기 체험’과 개인의 의미를 담은 ‘나만의 괘 메모 만들기’를 진행한다. 이를 통해 일상에서 고전을 체험하고 삶의 방향성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.
- **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(library.busan.go.kr)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.**
- **박은아 부산도서관장은 “부산도서관은 「북 큐레이션(BOOK CURATION) 2.0 × 인피니트(∞): 공간의 무한확장」이라는 주제를 통해 도서 추천(북 큐레이션)의 진화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”라며, “이번 전시를 통해 책이 머무는 공간을 넘어, 책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며 삶과 연결되는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길 바란다”라고 전했다.**



참고 2

각 자료실 코너별 공간 연출사진

취향서점: 2F(책마루)



클래식 감상: 2F(책마루)



국외협력도서: 2F(책마루)



단 한 권의 책: 2F(책마루)



한 번만 읽어주세요: 2F(책마루)



오늘의 북플릭스: 3F(책누리)



오늘의 북플릭스: 3F(책누리)



부산의 기억: 3F(부산애들)

